

다양한 시력교정술, 개인 눈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건강 바로 알기 시력교정술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원장

고3 수험생 윤모(19)양은 2023년 수능능력시험을 마치고 시력교정술을 하려고 버리고 있다. 그동안 공부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미룬 채 안경으로 버텼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안경을 벗고, 편하게 화장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더욱이 수능 직후에는 수험생 할인 등 이벤트를 하는 곳이 많아 부모님께 비용적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윤양과 같이 수능이 끝나면 시력교정술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시력교정술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병원 이벤트나 후기만 보고 수술할 안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본인의 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의료진의 경력과 노하우, 검사장비, 사후관리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섹과 라섹=라식은 각막 절편을 만들어 각막 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 방법이다. 통증이 적고 빠르게 교정시력에 도달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각막 두께가 얇거나 고도근시의

각막두께·고도근시·동공크기 고려
스마일프로, 부작용 적고 회복 빨라
각막 비대칭·고도근시·난시 등 적합
의료진 노하우·검사장비도 따져봐야

경우 수술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라섹은 희석된 알코올로 상피를 벗기고 각막 실질 표면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다.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강하며 안전하지만, 라섹 수술보다 통증 및 눈부심 등이 있고 시력 상승까지 회복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스마일 라섹과 스마일 프로=최근 라섹과 라섹의 장점을 모아 만든 시력교정술로 각막 손상과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스마일라식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욱 업그레이드된 '스마일프로'가 한국에 도입됐다. 스마일라식은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800만 안 이상, 국내 100만 안 이상의 수술이 시행되어 안전성을 입증했다. 스마일프로도 이미 유럽에서는 6만 안 이상이 수술받아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스마일프로는 기존 스마일라식의 장점에 빨라진 레이저 속도와 초정밀 스캐닝 기술이 적용되어 수술시간 단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집중

해야 할 시간을 줄여 선택소스를 없앴다.

또한, 스마일라식은 레이저 조사 중 각막 내 버블이 발생한 다음 두 번째 레이저 조사가 진행되었다. 반면 스마일프로는 레이저 조사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져서 모든 레이저 조사가 끝난 후 버블이 발생한다. 레이저 속도가 수술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더 깨끗한 상태의 각막에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수술 후 시력의 질을 빠르게 상승시켜준다..

기존 스마일라식 수술 시 레이저와 현미경이 고정되어 있어 환자를 높은 침대를 기계 쪽으로 움직여야 했는데, 업그레이드된 스마일프로 장비의 경우 로봇 암이 움직이는 첨단화된 방식으로 수술 시 환자가 느낄 수 있는 긴장과 두려움을 낮췄다. 또한, 수술시 조이스틱을 이용해 로봇 암을 이동시키거나 기계가 직접 맞추는 작업이 가능해 난시 교정의 정확성을 높였다.

스마일프로는 특히 각막이 비대칭이거나 고도근시나 난시, 동공이 큰 경우, 각막 두께가 얇은 경우, 오랜 기간 렌즈를 착용한 경우, 빠른 시력 회복과 일상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적합한 수술이다.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대표원장은 "스마일라식, 스마일프로는 각막 실질을 정교하게 제거하는 섬세한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의 수술 실력과 노하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김재봉 원장이 각막이 비대칭인 환자를 상대로 스마일프로 수술을 하고 있다.

독감 예방주사, 생후 6개월부터 접종 대상

노인·어린이·만성 질환자 등 취약... 10월 안에 접종해야

독감은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3월, 4월까지 유행하는 계절성 질환이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여름에도 독감 환자들이 다수 발생했으며,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도 계절과 관계없이 감염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독감 유행이 시작하는 겨울이 되면 독감 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나마 다양한 점은 독감은 백신이 개발된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독감 유행 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독감 예방이 가능하고 독감에 걸리더라도 경미하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김동규(사신) 광주전남지부 원장의 도움말로 독감 예방 주사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독감 예방주사는 매년 맞아야 한다. 대다수의 예방주사는 접종을 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효과가 지속되는 편이다. 그렇지만 독감 예방주사는 효과가 6개월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매년 맞아야 한다.

독감 예방주사 효과가 짧은 이유는 독감의 원인이 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속적인 변이로 매년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한 탓에 작년에 맞은 독감 예방주사의 항체가 있더라도 올해 독감은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민석

따라서 매년 어떤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할지 예측해 새로운 백신을 출시하고 있다. 접종 즉시 바로 항체가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체 생성까지 2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0월 안에 독감 예방주사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독감 예방주사는 생후 6개월이 지난 모든 사람들이 접종 대상이다. 건강한 성인들은 독감에 걸리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호전되기 때문에 접종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 어린 아이,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또한 치사율이 0.5% 내외로 매년 독감에 의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다.

건강한 성인은 독감에 걸리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자녀나 부모에게 독감을 전파할 경우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남에게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대병원 간호부, 바자회 수익금 학마을봉사회 기부



전남대병원 간호부(부장 최명미)는 최근 병원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박창환 진료부원장, 김유일 공공보건교과사업실장을 비롯한 최명미 간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마을봉사회에 300여 만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최근 간호부에서 진행한 사랑나눔 바자회의 수익금으로서 전남대병원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학마을봉사회에 저소득층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전달했다. 지난 2002년 6월 창립된 학마을봉사회는 현재

1876명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약 23억7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은 물론 의료봉사 등 이웃사랑 실천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만점 획득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용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2차 치과근관치료적정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평가'는 치과 근관치료

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기독병원은 2018년에 이어 이번 2차에도 만점을 획득하였다.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동일 요양기관에서

근관치료를 시작해 근관충전을 완료한 만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4가지 평가지표 ▲근관치료 전 방사선 검사 시행률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근관충전 후 방사선 검사 시행률 ▲재근관치료율을 평가하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의 두
전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